



모두발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한국프레스센터  
2019년 1월 11일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다섯 번째 방한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방한 관련 내용은 오는 3월에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방한 기간 동안 여러 정부 관계자와 만나 최근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외교계 인사와 교류했고 근래 북에서 이탈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번 방한 또한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습니다. 이번 방한을 가능토록 도움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년 여 전 주목할만한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진 전환점을 돌아보았습니다. 뒤이어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데 기여한 여러 유의미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2개월 간 이러한 여세를 이어나가도록 큰 노력을 기울인 주요 당사자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는 데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가원수 가운데 한 분은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9년은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결정적 한 해일 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장을 취할지 살펴볼만한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위임권한과 전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방한은 분명 유익하고 생산적이었으나,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기관, 국민과 교류했어야 합니다. 모두발언도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제 위임권한의 핵심은 해당국 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일과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국민과 당국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저의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서한을 교환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협력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전세계가 지난 일 년 간 긍정적인 전개 상황을 목도했으나 북측 내 인권은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대다수는 보건, 주거, 교육, 사회보장, 취업, 식량, 물, 위생 등 경제권과 사회권 향유와 관련된 부문에서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발전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을 목도할 때입니다만 사회계층제도인 성분이나 성별 등을 근거로 고착화된 차별이 만연하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식 가부장적 의사결정으로 경제발전 등의 사안을 결정하며 부패가 만연한 까닭에 일반 시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금번 방한 동안 북에서 최근 이탈한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외없이 일반 시민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동을 포함하여 북측 주민이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탈 주민 한 명은 현 북측 내 상황을 축약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제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한반도에 정치범 수용소라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에 반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 수 천명이 수용되는 곳으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이는 강제 실종에 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재는 가족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북측 주민은 자신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며 이러한 두려움은 주민의 인식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만연한 두려움은 곧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출국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북측에서 제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이탈 주민 한 명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구금 시설 내 학대와 고문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해당 구금 시설에는 북을 이탈한 후 중국 정부에 의해 송환된 이들이 구금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위임권한과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해당국 공식 입장을 전해들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부문을 논하면서 놀랍게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탄공업부문을 언급하여 “탄부들의 생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년사 내용을 일반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측 지도자는 신년사에서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층 방침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낼 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유의미한 협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측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져가는 것”은 협상 덕분이며, 인권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북측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협력 및 국제적 협력을 유의미하게 이어나가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개발과 인권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과

인권이 서로 동떨어져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국제 공동체에 다음을 청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관계당사자에 지원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국 내 전 지역 접근을 확대 및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하여 해당국 국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던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재 조치 이행을 살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에도 같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재 조치는 가족 상봉 등과 같은 유의미하며 인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인도적 조치를 용이토록 해야 합니다.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평화 및 비핵화 협상에 직접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공동체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줄곧 지지해 온 메시지를 재차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제공동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도외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진시킬 역사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 관련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밟아나가길 재차 촉구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현재 중대한 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서로 적국 또는 적대국이라 여기던 당사자들 간에 평화 및 비핵화 의제를 논의하여 하루빨리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9 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인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